

## 국산 초음속 공격기 A-50 초도비행 성공

### 레이더와 기총은 기본,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등 추가 장착 가능



**한국** 항공우주산업(주)은 9월 4일 경남 사천의 공군 기지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공격기인 A-50 초도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비행에서는 활주로 주행, 이륙, 비행, 착륙에 이르는 비행성능 평가의 전 과정을 통해 항공기의 감항성, 조작성, 기본 시스템의 작동, 비행시험계기 및 원격자료 송수신 등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개발된 A-50 초음속 공격기는 지난해 8월 20일 초도비행에 성공한 T-50 고등훈련기와는 달리 레이더와 기총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및 레이저 유도폭탄, 정밀유도 무장장비의 추가 장착이 가능하다. 특히, 단좌형 전투기로 개조시 현재의 F-16 항공기 이상의 성능 및 교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A-50 공격기의 시험비행을 수행한 공군 A-50 시험비행 조종사 강철 소령(공사 37기)은 비행성능 테스트 후 "A-50은 기본적으로 T-50 고등훈련기와 동일한 비행성능을 보유했으며 탑재된 무장능력 및 레이더의 성능을 감안할 때 차세대 전투기의 전술입문 훈련 및 공격기로서의 임무를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A-50의 성능을 높이 평가했다.

항공기 단일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국내 최초

의 초음속 항공기인 T-50 고등훈련기 초음속 돌파 성공에 이어 A-50 공격기의 비행에도 성공함으로써 올해 안에 국방부의 최종승인을 획득하여 총사업비 4조원대의 T-50/A-50 항공기 대량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까지 00대의 항공기를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2000년대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고등훈련기 겸 공격기 기종인 T-50/A-50 항공기는 한국 공군 뿐만 아니라 이미 노후화된 세계 고등훈련기 겸 공격기 시장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800~1,200대, 시장 점유율 25%, 총 300억 달러 상당의 해외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길이 13.1m, 폭 9.4m, 높이 4.9m의 A-50 공격기는 최대속도 마하 1.5, 최대이륙중량 13.5톤, 실용상승고도 14,780m로 F-16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

A-50은 기본적인 전술입문용 훈련기의 목적과 공격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도의 기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 신뢰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첨단 디지털 엔진제어 방식의 F404-GE-102 엔진, 전투기보다 높은 구조하중 기준을 적용한 견고한 기체 및 착륙장치, 검증된 록히드 마틴사의 APG-67(V4) 레이더와 General Dynamics사의 20mm 기총 등을 채택했으며, 최첨단 무장제어 컴퓨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무장제어 시스템 하에서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레이저 유도폭탄 및 외부연료탱크를 포함하여 약 4.5톤의 무장장착이 가능하다.

이번 A-50 공격기의 비행은 초음속 항공기의 국내개발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항공무기체계 운용기반 구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A-50 공격기로 비행훈련 및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조종사들의 자부심과 긍지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우주산업 발전 세미나 열려

## 세계 10위권 항공우주산업국 도약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한국**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9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산·학·연·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10위권 항공우주산업국 도약을 위한 항공우주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김동수 산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장의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이경대 세종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교수의 「항공산업의 효율적 발전방향」,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국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 발굴」, 박재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상무의 「항공산업의 효과적인 수출전략」 등 총 4개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동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항공우주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박재점 상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항공산업은 21세기의 차세대 기술선도적 산업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성장엔진으로서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산업”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국내 항공산업의 여건은 KT-1 및 T-50 등 수출시장에 적합한 독자 브랜드를 보유, 발전적인 기본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충족할 수 있는 시장의 확충이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였다.

# 해외 무관 방산간담회 개최

## 국내 소집회의와 재교육 등을 통해 무관 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방산** 물자 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에 파견된 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간담회가 지난 8월 28일 국방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17개국 19명의 해외 파견 무관과 20개사 33명의 방산업체 직원 등 총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관의 활발한 방산 수출지원 활동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의 주요 수출 추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무관 주재국별 구체적인 무관 지원활동 요구사항에 중점을 두면서 해외 무관/방산수출 담당자간 상호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